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6296.38 (-301.88)	↑ 코스닥	801.67 (+2.08)
↑ 금리 (미국 9월)	3.742 (+0.073)	↑ 환율 (원-달러)	1429.10 (+4.60)

그린벨트 해제지 어디? 내곡·태릉CC 등 촉각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희부지, 공공부지 등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미개발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변), 태릉골프장(태릉CC) 등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에 새로운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 서울의 25% 내곡동-강남, 방이동-잠실 입지 태릉CC, 동북권 대규모 공급 가능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향상 위해 토지보상·주변영향 등도 살펴야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강북권은 산지가 많고, 강서권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서는 비교적 평지가 많고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권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가까워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보급자리주택지구(가)가 있어 택지 개발 경험도 있다. 세곡·



국토교통부가 우면동 일대를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일대 모습. /뉴시스

자곡동 역시 기존 보급자리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주변에 강남·세곡지구 아파트가 이미 조성돼 있고 수서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위례신사선 등 교통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송파구 방이동 일대도 잠실과 인접해 입지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태릉CC는 과거에도 후보지로 검토됐던 곳이다. 서울 동북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현지 시장의 반응은 아직 조용한 편이다.

송파구 방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일 “토지 소유자들은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첫 분양 목표는 2029년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수용 방식, 마을 존치 여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과 영농인,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입지와 공급 규모뿐 아니라 토지 보상과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권 수요를 일부 분산하고 공급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긍정적”이라면서 “얼마나 핵심지와 가까운지, 또 해당 부지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이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내 용산어린이정원 등 유희부지와 용산역 일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도심 내 우수 입자의 유희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 했다.

특히 용산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에 더해 용산어린이정원과 같은 국유·공공부지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도 관심사다.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공식 출시

삼성전자는 오는 7일부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김정관 “주52시간제, N% 성과급 반대”

산업장관, 관훈토론회 “일하려는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돼 중, 상상 초월하는 속도로 달리는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사진)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 등 산업 전반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국의 경쟁자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



김 장관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 내 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IT 기업 방문 당시 주 6일·12시간 근로 방식인 ‘996 제도’조차 근로자들 스스로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려달라 요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쟁 상대인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지킴이선 안돼…노동 유연성 확보 시급”

“주52시간제 이슈를 단지 기존 노동계의 시각이나 청년 이슈로만 치환하면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정부가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되며, 스타트업과 청년 경영진 모두에게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가르마타 주겠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4나노 캐파 품귀… ‘5나노 공정’ 대안 제시

차량용AP ‘돌핀’ 5나노 기반 개발 4나노 대기수요 흡수… 고객층 확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생산능력 확보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세대 2나노 양산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4나노 공정 캐파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업계에서는 5나노 공정을 활용한 고객 확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은 내년까지 생산능력이 대부분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적용되는 로직 베이스다이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그록(Grok)의 언어처리장치(LPU) 물

량이 늘면서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4나노 공급을 기다리기 어려운 신규 고객에게 5나노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는 일부 팹리스에는 5나노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나노 공정은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텔레칩스는 차세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돌핀7’을 삼성전자 5나노 공정 기반으로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해외 팹리스를 중심으로 서버용 칩과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위한 5나노 공정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5나노 활용이 선단공정 전략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AI·고성능컴퓨팅(HPC) 고객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나노에서는 고성능 고객을 확보하고 5나노에서는 4나노 대기 수요와 중소형 팹리스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공정별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미국 테일러 공장도 생산능력 확대의 주요 변수다. 삼성전자는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과 메모리·파운드리·첨단패키징을 결합한 턴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韓줄뉴스



▲ 유승민 “李정부 ‘닥치고 세금’ 들고나와…주가 띄우기에만 정신 팔려” /사진 뉴시스

▲ “돌려차기 망인” 논란 서범수·진중오, 결국 윤리위 ‘징계’로

▲ 이상호 “조정식 발언으로 개헌 물건너가…연임 불가능 알면서 공격”

▲ 군, 오늘 독도 인근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 훈련

▲ “노태우 묘역 참배 고민” 보훈장관, 국민정서 고려 참배 않기로

▲ 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운명은…행안부 “공중경”, 법무부 “근거 없다”